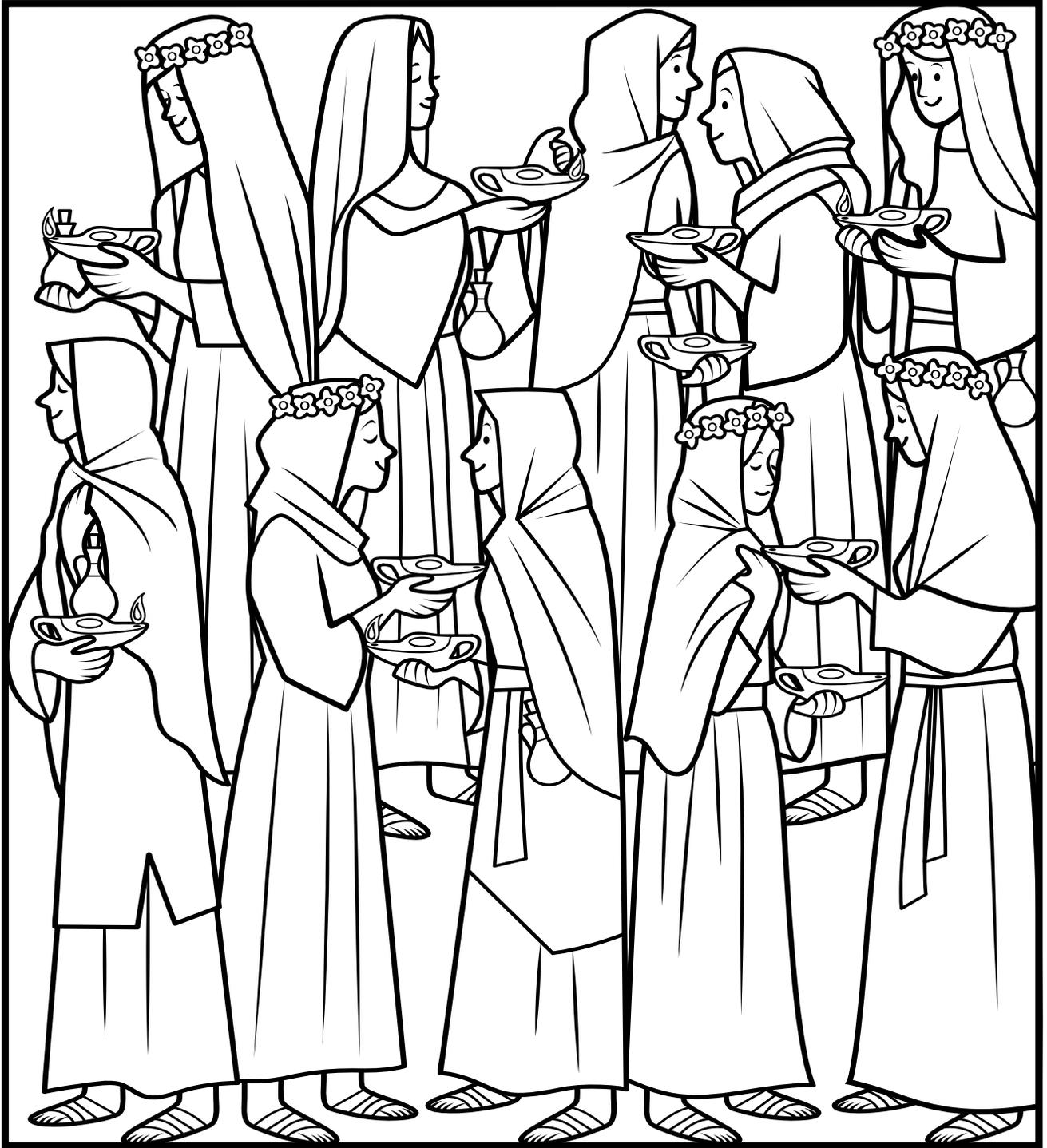


예수님은 밤중에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**열 처녀**의 비유(이야기)를 들려주셨어요.  
 그들 중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으며 기름을 넉넉히 가져와 자기 등불을 밝혔어요.  
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기름을 더 사러 가는 바람에 혼인 잔치에  
 참석하지 못했어요. 기름을  넉넉히 가져온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찾아보세요.



마태복음 25장

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비슷하나요?